

레위인의 책임 (민수기 1:47-54)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제목은 레위인의 책임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이 알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레위인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는 아니라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것이 레위인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응답을 향하여 뛰어다니지 말고 이것을 향하여 뛰기 바란다. 이것을 놔두고 응답을 위해 뛰면 그것을 종교라고 한다.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오늘은 잊어버리지 않기 바란다.

인간은 어이없게도 사단에게 속아 근본문제에 빠졌다. 그 때 그 일만 없어도 이 일이 안생겼을 것이다. 코로나도 안 생겼다. 코로나는 근본문제고 사단의 문제이다. 거기에 잡히면 사단에게 진 것이다. 의식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잡힌다. 그 근본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죽어도 안된다. 죽으면 죽었지 문제는 해결 안된다.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나는 절대 안되는데 답이 이것이라면 답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들을때만 답이고 가면 잊어버린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을 고쳐야 한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이것 먼저 고쳐라. 세상에는 중요한 일 많다. 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 많이 있다. 이것을 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언약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언약으로 사는 자가 남은 자이다. 남은 자는 자동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세상을 자동적으로 순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순례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정복자이다. 이 언약은 근본문제에 대한 답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언약이 답이다. 다르게 답이 아니고 뛰어다니는게 답이 아니고 연구와 생각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문이 열린다. 틀림 없다. 잊어버리지 말고 펜이 부러지도록 써놓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 누리는게 잘 안되서 화가 나서 쓰는데 연필이 부러진적이 있다. 조금만 안 잊어버리는 품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난다.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잘 안열리는 분도 있다. 생각해보라. 내가 잡은 답이 뭔가? 이 안열리는 문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잡았는지 내 생각이나 욕심을 잡았는지 생각해보라.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라는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고 하나님이 주신 명쾌한 생각으로 답이 나와야 한다. 바보가 되라는 말을 왜 하는가? 바보가 되면 안된다. 대부분 그리스도도 살지 않는다. 왜 이게 답인데 그리스도도 살지 않을까? 매주 듣는데. 생각해보면 매주 듣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본문제에 대한 답이 이컨데 이거로 살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다. 그리스도가 1번인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사단의 방해 아닌가? 속은 것이다.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루하루 모여서 내일 죽는 것이다. 속은 것 아닌가? 속은지 않은지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복음을 모를 때 다 그랬다. 나도 그랬고. 귀신들린 자들이 내 옆에 있는데도 그게 귀신인지 몰랐다. 성경은 내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었다고 생각한 인간이었다. 약국에서 조금만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변을 토할수 있었다. 그 때 내 혼자 생각에, 예를 들어 200-300명 모아놓고 말하라 하면 읽고 없이 2-3시간 말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사가 좀 잘났고 교만했다. 귀신을 모르는데, 바보였고, 힘없다. 아무리 해도 전도 안된다. 그리스도 안되는데에도 답은 그리스도이다. 이래도 답은 그리스도고 저래도 답은 그리스도이다. 답 나와야 한다. 안 그러면 인생 원망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구나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다. 반드시 인생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론 시간표가 있다. 복음을 모르고 응답 모를때에는 시간표를 약간의 핑계 비슷한 단어로 썼다. 지금은 핑계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된다. 그 전에는 백날 해도 안된다. 이유가 뭐가하면 내가 훈련 받을게 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읊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고난이 아니면 표가 나지 않을만큼 바깥으로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성경에 없다. 그 정도로 바깥으로는 확실했다. 울법 지키는 것이. 나중에 회개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뭘을 잘 못했냐?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 맘대로 안되고, 우리가 이 언약에 떨어지지만 않고 있으면 때가 온다. 참 감사한 일이다. 답인줄 하는데, 내가. 이 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다. 언약에 떨어지면 안된다. 예배를 확실히 드려야 하고 기도를 정말로 확실히 해야 한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놀러다니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그건 안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안 담았는데. 한번 응답 받고 진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증인되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 다 필요 없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바란다.

1.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

민수기 1장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1:3절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였다. 숫자를 계산하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5절에는 보면 숫자를 계산하고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명했다. 모세가 우두머리를 뽑은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 했다. 하나님이 이야기 했다. 르우벤 지파의 대장은 누구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머리맡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한다. 가끔씩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때로는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네? 한국말로 말하시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46절에 총 숫자를 말했다. 60만 3550명이라고 하였다. 20세 이상이니가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도 같은 숫자라고 하면 120만이고 60세 이상도 있으니가 합하여 250-300만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레위지파는 이 숫자에 넣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는 레위지파는 전쟁나도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이다. 50절에 보면 레위지파의 임무는 따로 있다.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했다. 51절에는 성막 운반할때에는 레위인이 하는데 만일 다른 지파사람들이 오면 죽이라고까지 했다. 엄한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성막이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성막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성막에서 하는 일은 예배이다.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막사를 진영별로 기 곁에 텐트를 치라고 했다. 그런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막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보기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보기에 예배당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9절 우리가 잘 아는데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전세계를 두고 볼 때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한 말씀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레위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으로 그들을 재앙에서 건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이고 남은자 운동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사명이다. 깨달아 지키 바란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언약으로 잡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본문에서는 레위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군대 숫자에 넣지 말라고 했다. 전쟁이 일어나도 레위인은 전쟁에 안나가고 오히려 성막으로 간다.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약속의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전쟁이 있든지말든지 간에 성막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온 전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7장 38-39절을 매일 어린양 두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항상 해야 하니가 적어도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에 어린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다. 전쟁나가 싸우는게 아니라. 그리고 레위인은 성막을 걷고 움직일 때, 걷고 세우고 할 때 레위인이 하는데, 거기 외부인이 오면 죽여버리라고 했다. 그 정도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는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왔다. 그러나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배가 중대한 전쟁인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내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에 승리하고 견뎌낼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든 말든, 집에 있으면 자연히 평화롭게 예배 드릴 것이다. 평상시 입던옷, 또는 잠옷, 또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생명을 건 예배일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볼수 있을까?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한 일이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전쟁하는 것에 생명을 걸라는 것이다. 답이 그것인데, 다르게 답이 있느냐. 답이 없다. 이 언약으로 예배 드려보

라는 것이다.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증인되는 것이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자기들이 사는 텐트를 성막 주위에 사방으로 쌓아서 성막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완충지대를 만들라는 것 아닌가? 이게 레위인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를 보면 교회 안에서만 적용해서 레위인을 교역자라고 이야기 한다. 물론 교역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두고 결심을 새로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로 잡고 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고 말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오히려 우리 전체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인이다 이래야 정상이다. 이렇게 크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하여 레위인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말씀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다. 우리는 그 레위인중 레위인이다. 왜냐면 바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 중의 레위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남는 자이다. 남은자가 하나님의 레위인이라는 뜻이다. 레위인은 전쟁이 나도 싸우러 가지 않는다. 성막으로 가서 오히려 제사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한가로운 것을 한다고 할 것이다. 전쟁이 났는데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인의 전쟁이다. 이것이 더 근본 전쟁이다. 문제가 오면 전쟁붙어야 한다. 무엇이 근본인가?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근본이다. 전쟁 붙으려고 총 찾으러 뛰어다니지 말고 예배를 해라는 말이다.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생명인 것이 레위인이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잡고 언약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한다. 안되면 기도해야 한다. 안되어지면 계속 기도하고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언약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적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를 듣고 기적으로 이기는 것이 레위인의 전쟁이다. 이것이 근본 전쟁 아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문제 뒤에 역사하는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이다. 우리는 이런 레위인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에 보혈, 그 약속의 피 하나로 모든 전쟁을 끝내는 이 시대의 레위인,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올인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문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공짜로 살아야 하는데,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 그 피로 구원 받은 우리가. 그러니 이것이 종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앞서 있다. 종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전쟁 나갈 필요 없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나가 지 않는다. 오히려 성막으로 가고 기도처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언약을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노력으로 힘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돈을 벌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딱 끊고 방안에 들어앉으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하는 일 보다도 그리스도가 뒤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일 앞에 댈라는 말이다. 지금은 우리가 당한 문제는 무슨 것이든 영적 문제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답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문제 앞에 놓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재앙에서 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다. 맨날 주일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정말로 조용히, 진심으로 그리스도 누리면 인생역전 된다. 문 계속 열리게 된다. 매일 열린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열린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천지도 모르고 비웃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향받을 이유가 단 일도 없다. 다시 한번 깊이 언약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도제목이다. 하나님 나는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것을 바보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기도제목이다. 하나님 왜 나는 계획이 많습니까? 이것을 깨주세요.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 차라리 한발 물러 서서 살아야 한다.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증인 되기 바란다.

2.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레위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인간은 어찌피 절대 여정이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들어 있다. 어찌피 우리는 모두 절대 여정이다. 이미 결정된 절대 여정을 언약의 절대 여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절대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겠는가? 하나님의 시대적 요구를 향하여 살면 된다. 이 시대 요구는 237, 치유, 서밋이다. 그 중에서 치유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봐도 된다.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 원죄 이후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적 문제가 유별난

시대이다. 그래서 미래의 영적 문제에 대해 대비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본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다. 나의 영적 문제를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의 답이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필요하면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한다. 237, 치유, 서밋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네 개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도 절대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 뿐이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속에서 이 일을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리스도 언약잡고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이것 하나 뿐이기 때문에 오직의 언약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부족하든 말든 이것 향해 살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참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다. 실패하지 않는 답이 있는가? 이게 답이다. 이것 하면 인생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인이 되어 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응답, 기적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 간다고 한 사람은 기적처럼 다 살아났다. 예레미야 27:1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이다. 이제 바벨론 왕의 멍애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했다. 그러면 살것이라고 하였다. 기가 찰 일이었다.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당시 거짓 선지자가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돼? 말이 되냐고 핏대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 다른 나라가 다 바벨론에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이잖아? 여호와? 많은 사람들이 헤깔렸다. 참 우리가 그 시대에 당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내 개인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왜 그랬냐면 복음 몰랐기 때문에. 복음이 머리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안 속는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것 위해 살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전쟁 났는데 성막으로 가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병신아닌가? 전쟁나면 도망가든지 싸워야 하는데 성막으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 거짓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런데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야지. 헤깔려서 지가 선택하는 것이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눈이 없는 것이다. 왜 없었는가? 복음이 없어서 없는 것이다.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내게 붙어 있는데 이게 귀신인지 안 보이는 것이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생각 새로 하고 정리 새로 하고 출발 새로 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아이도 낳고 번성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안전하게 살 것 아니냐?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방인에게 무릎을 꿇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에 속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 버리면 열길로 가는 것이다. 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깨달을 눈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다른데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성막에 가는데, 복음에 가는 자이다. 그 사람에게 누가 거짓선지자인지 판단할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이다. 혹 속아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견져내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권세이다. 다른게 아니다. 간단한 것이다. 복음. 과연 다니엘등 렘넌트들의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이 전 바벨론을 살렸다.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 살았다. 안 간다고 하는데 버틴 사람은 싹 다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이 순탄해진다.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237, 치유, 서밋이다. 왜 우리가 이걸 100% 받아들여야 하는가? 부활 메시지 네 개의 요약이고 예수님 오실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 길로 가야 한다.

리카르도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침에 와서 잠시 대화했는데, 지난주 엔세나다에서 네브라스카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두분과 장로 네분이 오셨다고 한다. 이 분들은 5-6년동안 매년 한두번 거기 오시는 분들이었다. 그 센터하고 리카르도 목사가 해마다 바뀌고 변화가 있는 것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에 삼일 동안 말씀듣고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리카르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릴때에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해서 통역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비용을 다 댈테니 자기 교회에 와서 3일간 훈련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 렘넌트들이 가서 그 교회에 복음을 남겨야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문이 열렸다. 그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사 몇 명 일어나면 된다.

내 인생이 순탄하고 응답이 계속되기 위하여 우리가 잡은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언약에서 인생 모든 것이 끝나기를 축원한다.